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과 인식제고 방안

2020. 7. 23.(목)
14:00 코엑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

목 차

1.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2. 기후변화 인식의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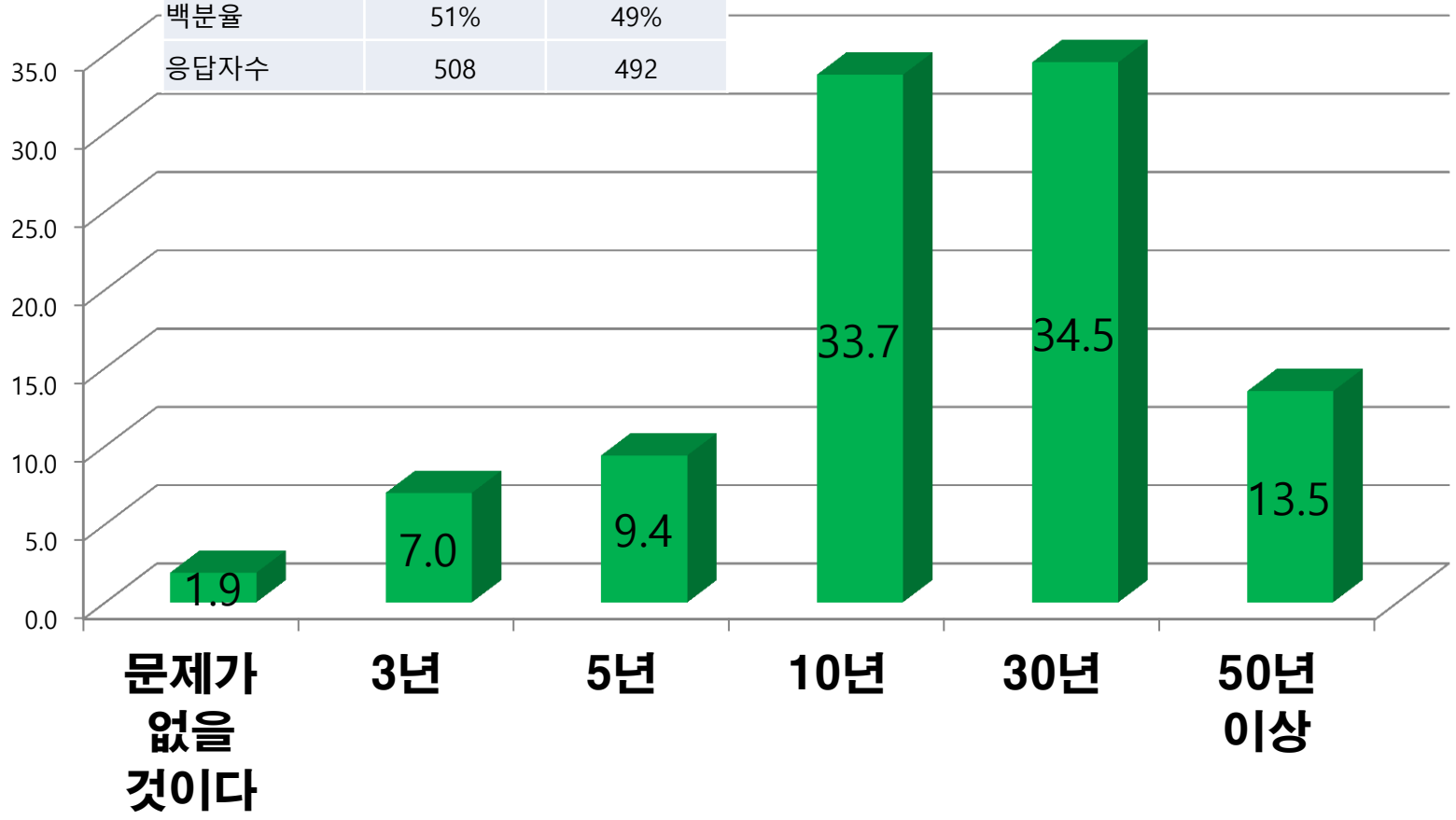
3. 기후위기, 인식에서 행동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류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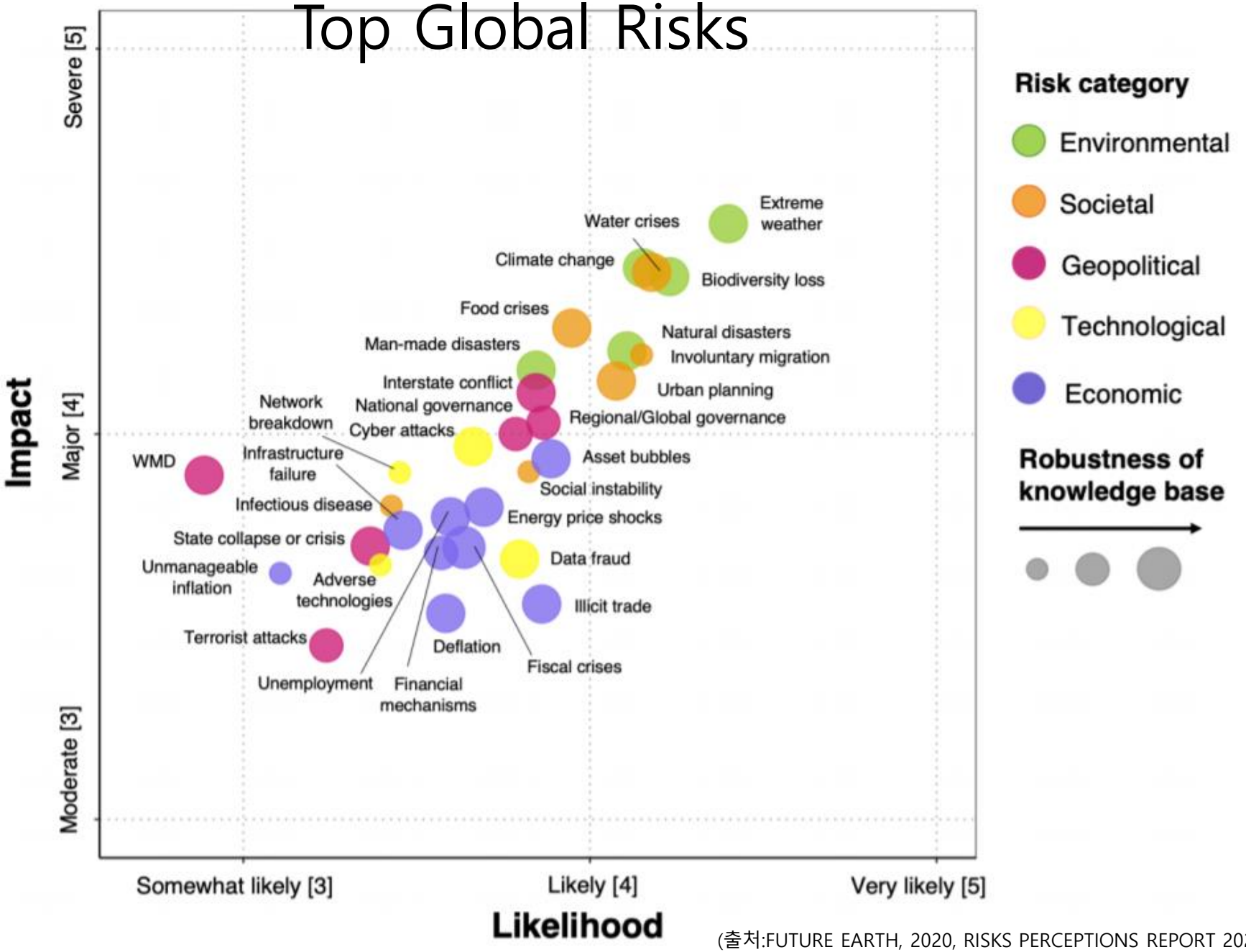
➢ 50% 이상이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응답

성별	남	여
백분율	51%	49%
응답자수	508	492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Top Global Risks



(출처:FUTURE EARTH, 2020, RISKS PERCEPTIONS REPORT 2020)

기후위기는 가장에 대한 과학자들의 인식

The Global Risks Landscape 2020 (World Economic Forum)

Top 10 risks in terms of **Likelihood** **발생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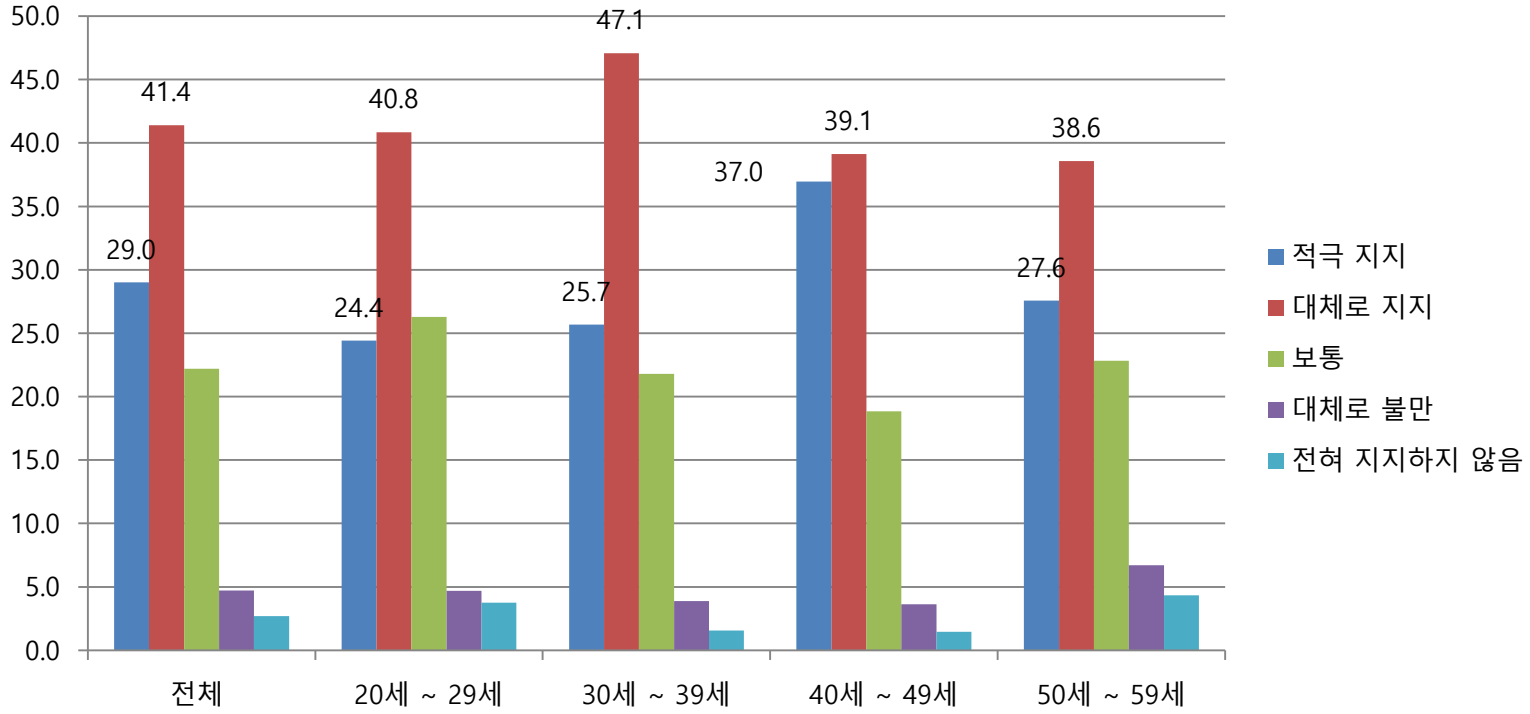
1. Extreme weather 극한기상 현상
2. Climate action failure 기후행동의 실패
3. Natural disasters 자연 재해
4. Biodiversity loss 생물다양성 손실
5. Human-made environmental disasters 환경재난
6. Data fraud or theft
7. Cyberattacks
8. Water crises 물 위기
9. Global governance failure
10. Asset bubbles

Top 10 risks in terms of **Impact** **영향크기**

1. Climate action failure 기후행동의 실패
2. Weapons of mass destruction
3. Biodiversity loss
4. Extreme weather
5. Water crises
6. Information infrastructure breakdown
7. Natural disasters
8. Cyberattacks
9. Human-made environmental disasters
10. Infectious diseases

출처 :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15th Edition (WEF)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는 70. 4%가 지지한다고 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5.3%로 가장 낮았고, 40대가 76.1%로 가장 높았음.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의 결과이며, 우리가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환경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80% of people around the world believe we are 'headed for environmental disaster unless we change our habits quickly'[i]

Climate change we are currently seeing is largely the result of human activity

	AGREE	DISAGREE
Total	**82%**	**12%**
Indonesia	95%	4%
Colombia	94%	4%
Mexico	93%	6%
India	92%	6%
Chile	90%	8%
Peru	90%	8%
Romania	89%	7%
Serbia	89%	10%
China	88%	8%
Turkey	88%	9%
Albania	87%	9%
Italy	86%	9%
S Africa	86%	11%
Argentina	85%	9%
Spain	85%	8%
Brazil	84%	12%
France	84%	7%
S Korea	84%	12%
GB	81%	11%
Russia	81%	11%
Montenegro	79%	16%
Belgium	77%	15%
Canada	77%	14%
Germany	77%	15%
New Zealand	77%	15%
Poland	77%	13%
Denmark	76%	15%
Sweden	75%	19%
Australia	74%	18%
Saudi Arabia	72%	16%
Netherlands	68%	20%
Japan	66%	16%
US	66%	23%

Source: Ipsos Global Trends

Base: 22,614 adults aged 16-74 across 33 countries, interviewed June – July 2019

Climate antagonism (기후 적대감)

많은 사람들이 환경주의에 피곤해 한다

16-24세 청년들의 39%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윤리적 소비와 편리함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

출처 : Ipsos, GLOBAL TRENDS 2020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의 유형

1. 많은 국민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2.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information)를 알고 있다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갖추고 있거나 기후위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

3.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행동과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세가지 유형

기후위험의 표상	논리	추론	기후변화 경험	인지적 취약성
단순 위험 (Simple risk)	선형 (Linear)	분석적	낮음	높음
다중 위험 (Multiple risk)	반복적 (Iterative)	상호작용/누적적	높음	중간
복잡 위험 (Complex risk)	반복적 (Iterative)	체계적	높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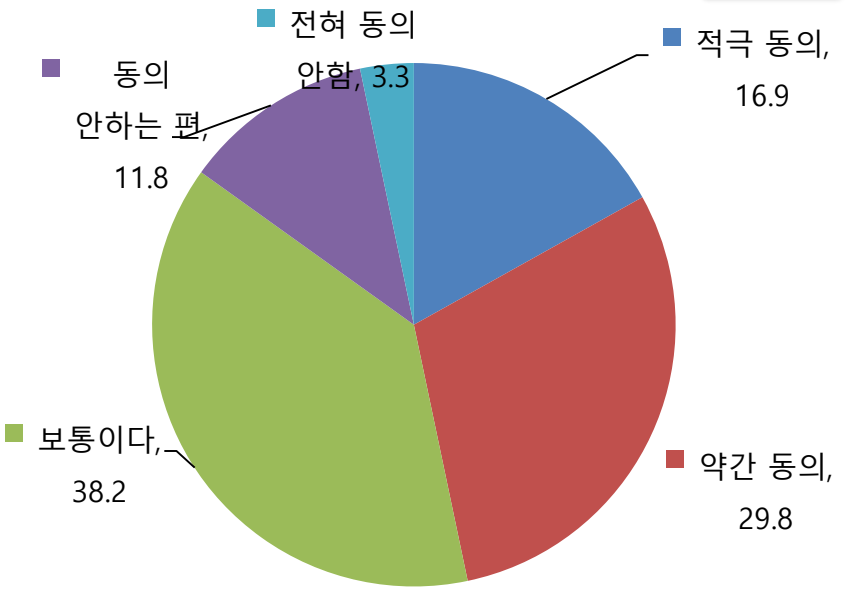
출처 : Annamaria Lammel, 2015, Climate change : from perception to action

기후변화 인식의 결정 요인

사실과 가짜 뉴스가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태양광 패널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더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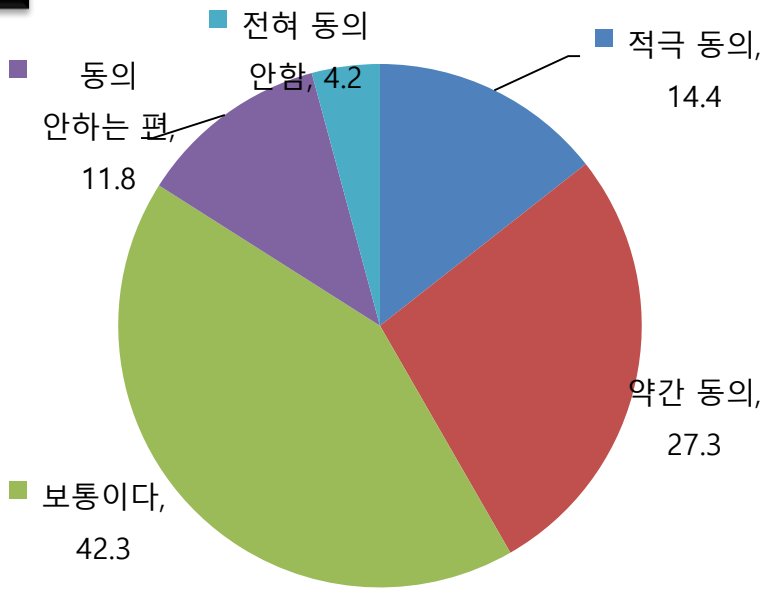
진실



동의하는 비율이 46.7%. 부동의 15.1%, 전 연령대별로 비슷한 경향

태양광 패널로 중금속 오염이 유발되고, 전자파가 발생하여 건강을 위협한다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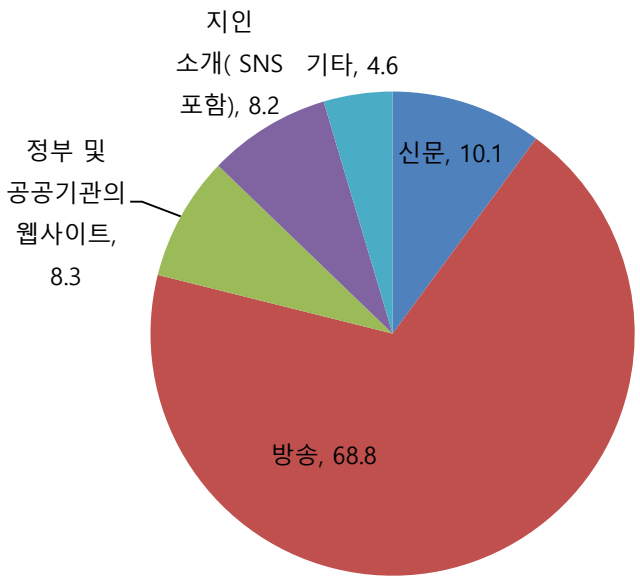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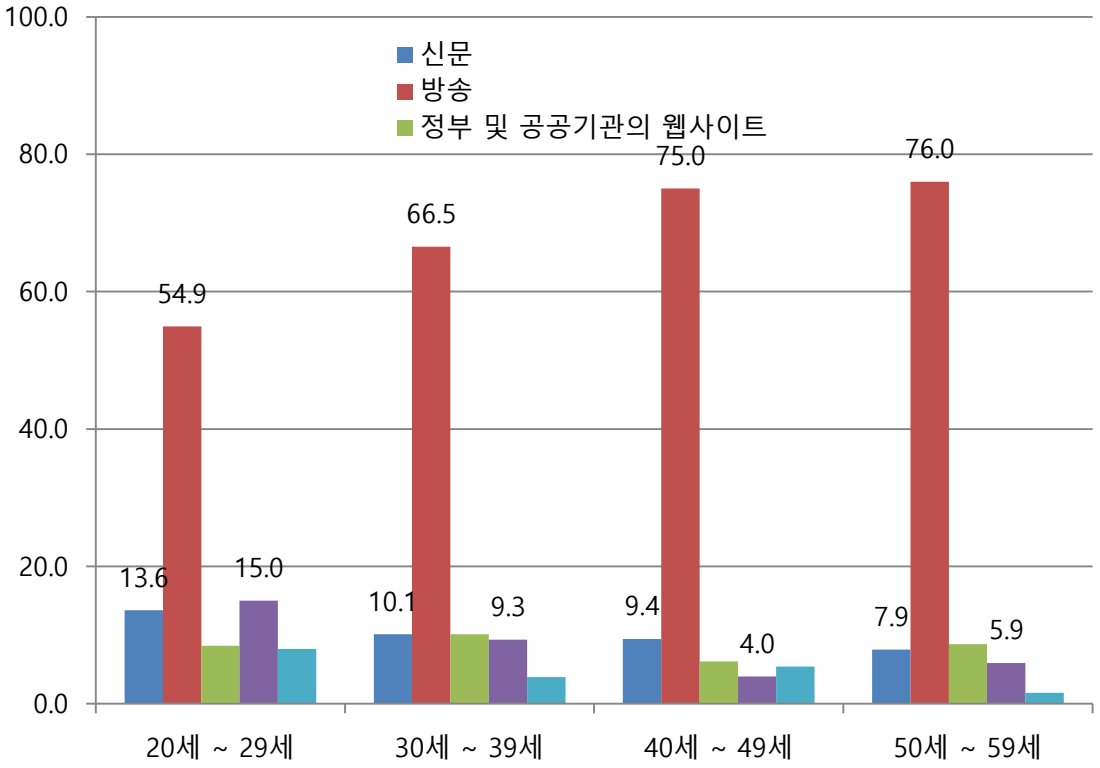
동의하는 비율이 41.7%. 부동의 16%, 20대가 동의비율이 가장 낮고(32.4%), 50대의 동의비율이 가장 높음(53.5%)

Tired of environmentalism is close to traditional nationalism. (Ipsos Global trends for 2020)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기후변화/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는 주로 어느 수단을 통해 접하십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방송을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이 68.8%로 가장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획득에서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대한민국에서는

"기후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다고 보는 문제들이 많아...."

경제적 불안정

부패

성 차별

소득불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

증오범죄

출처 : https://amnesty.or.kr/31550/

기후위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 온다

출저: The Local Fr.

출처 : Par Lilian Alemagna — 19 mars 2019 à 18:00

프랑스의 탄소세와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

정부는 종말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월말을 걱정한다

-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Gilets jaunes : 운전자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차에 구비하고 다니는 형광색 안전 조끼)'는 시위의 상징.
-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조치가 ' 환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부유세를 없애고, 유류세를 인상하는 조치에 반발
- 노란 조끼 시위의 핵심은 세금 인상과 계속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
- 노란 조끼 시위대는 극우 민족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상반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온건파도 다수 참여.

기후행동의 복잡성 : 세대별 인식의 차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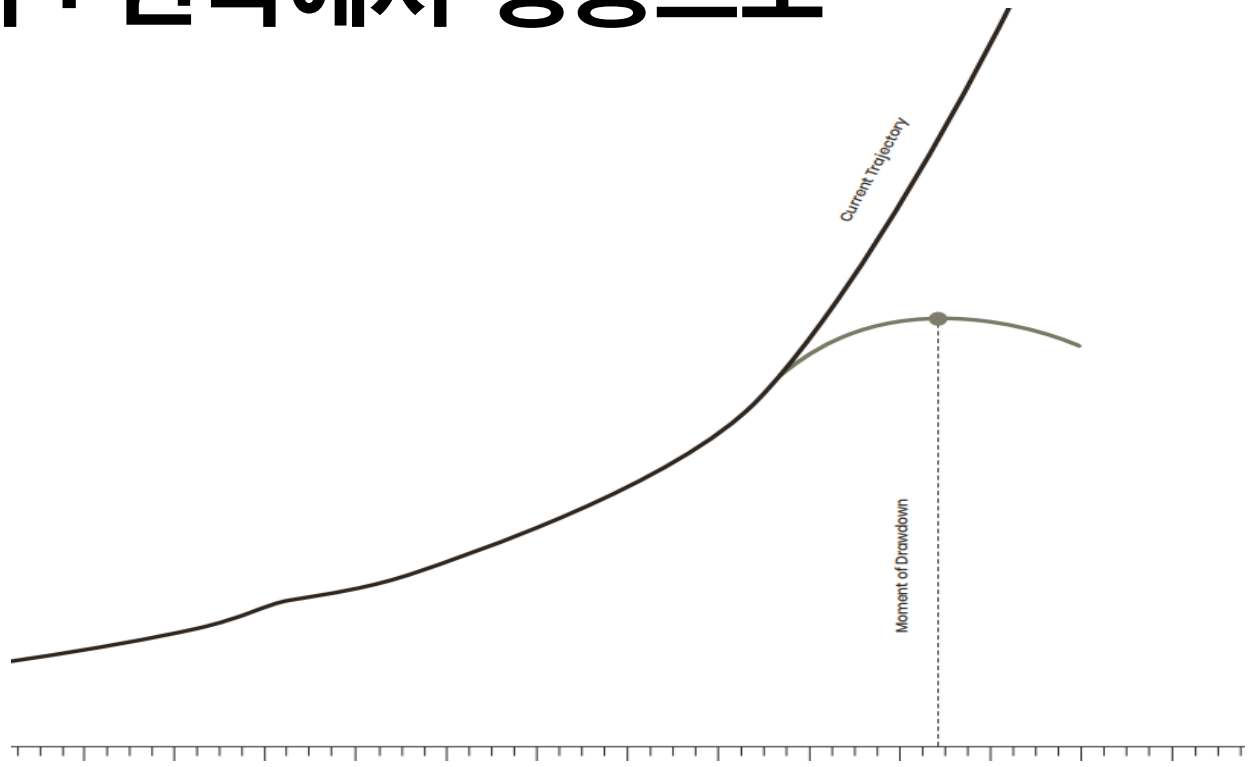
50대는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20대는 에너지비용 증가를 우려

기후행동의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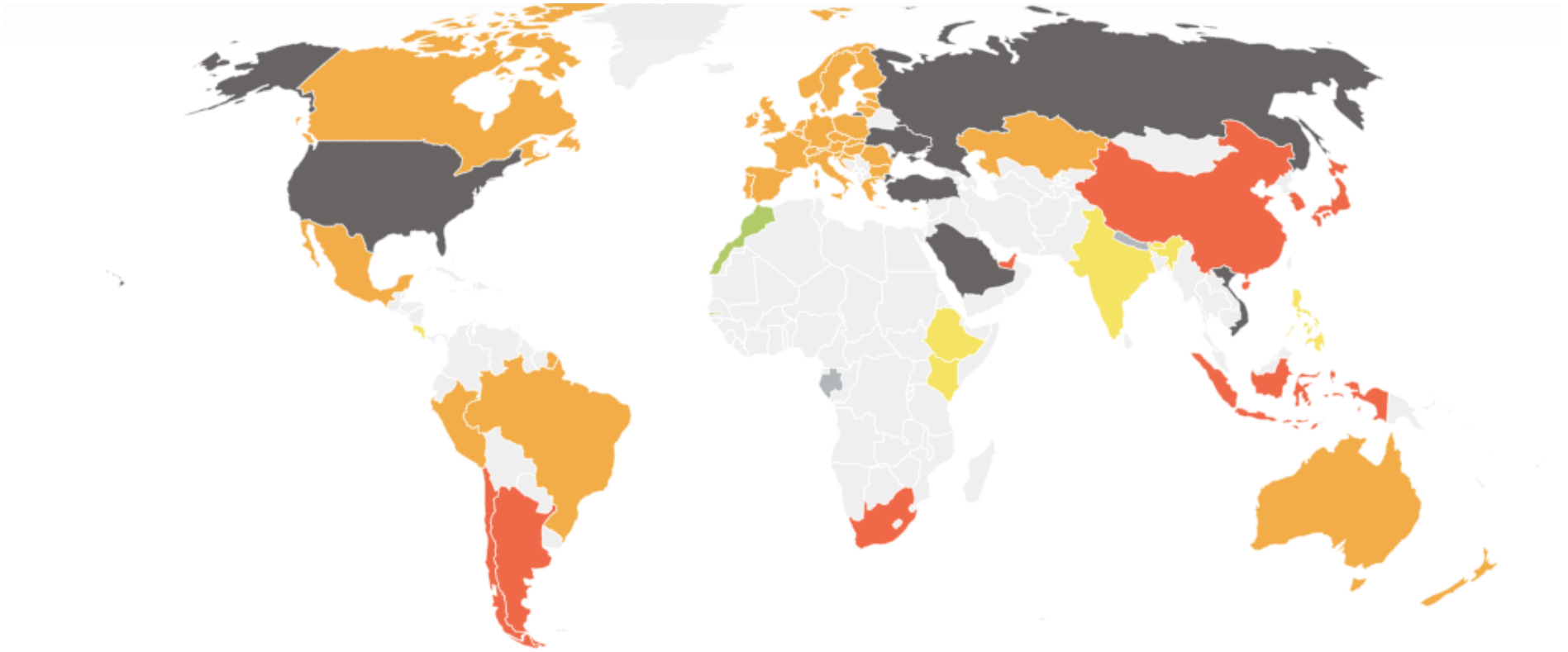
지각요인 (Perception)	가치요인 (Value)	사회 인구통계학적 요인
위험의 지각	이념(보수)	성별(여성)
지각된 편익	환경정의	연령
신뢰	종교편향	교육수준
비난귀인 (blame attribution)	개인규범	소득
지식	과학기술 낙관주의	사회계층
회의적 환경주의	환경주의	
기후 부정의	물질주의	

참고 : 김서용, 김선희 (2016); Seol-A Kwon, Seoyong Kim, Jae Eun Lee (2019)

기후위기 : 인식에서 행동으로



기후행동 수준의 비교



The maps displayed are for reference only.

LAST UPDATE: *March 2020*

CRITICALLY INSUFFICIENT	HIGHLY INSUFFICIENT	INSUFFICIENT	2°C COMPATIBLE	1.5°C PARIS AGREEMENT COMPATIBLE	ROLE MODEL
4°C+ WORLD	*< 4°C WORLD*	*< 3°C WORLD*	*< 2°C WORLD*	*< 1.5°C WORLD*	*<< 1.5°C WORLD*

출처 : https://climateactiontracker.org/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기후행동이 되려면

1. 사회 전체가 기후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잘 안다.
2.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3. 모든 구성원들이 그 해법과 방향에 모두 동의하고 기여하고자 한다.
4. 해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
5.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같다.

정부의 분명한 정책의지 제시

1.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정부 정책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우선순위가 국민들의 인식에 반영됨.

2. 정부의지의 대표적인 표현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탄소중립국가 목표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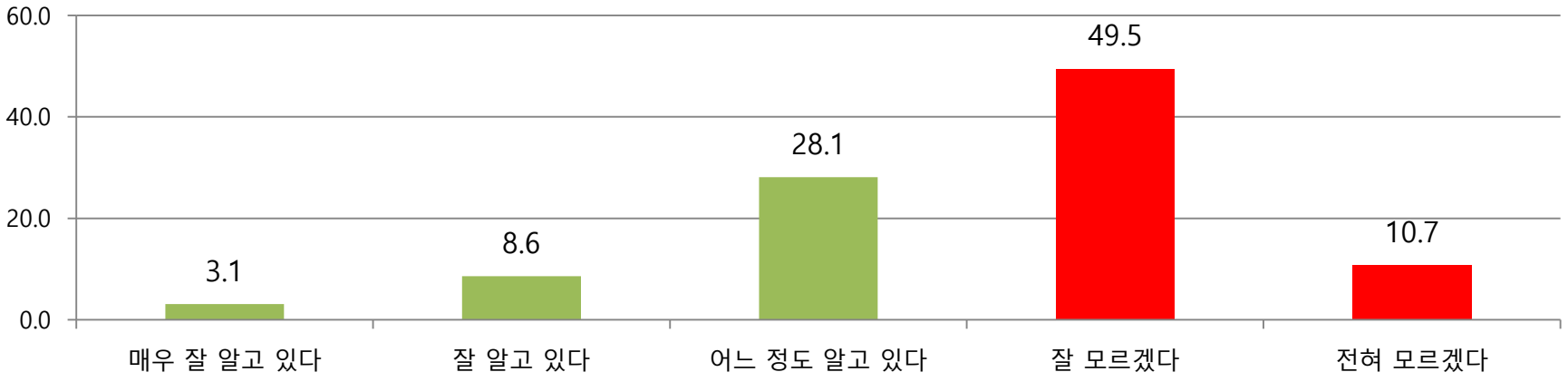
3. UNFCCC의 73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가를 이루겠다고 선언했으며, 14개 지역의 400여 개의 도시도 탄소제로 도시에 동참하기로 발표.

기후위기 대응을 모두의 이해관계로

1. 기후위기와 기업,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의 제고. (RE100, 탄소국경세, 탄소세, 탄소포인트 등)

2. 기후위기가 취약층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과 반대로 기후위기 대응이 특정지역이나 계층만의 관심사로 되어서는 안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사업의 편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방식'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

기후환경교육의 강화

1.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인간상을 기르는 교육 필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세계시민'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으나 책임과 존중과 배려의 대상을 지구생태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명시하지 않음

> "우리는 학교에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환경교육을 들으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가 일어나는 걸 배웠지만, 본질적인 해결방안과 우리가 했을 때 효과가 있는 행동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배워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스스로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노력해주세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먼 나라 이야기로만, 북극곰의 이야기로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며 학교 파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2019. 3. 15 청소년기후행동선언문)

시민과학과 시민 모니터링

1. 시민 참여는 단순하게 정보 공유와 의사 결정 참여 뿐 아니라 지식 생산 영역에서도 주체로 고려되어야 함.

2. 시민과학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과학적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과학자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 스마트폰과 ICT 기술 발달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 대규모의 공간적, 시간적 규모의 정보를 제약을 받지 않고도 생산 가능.

3. 과학자들과 시민과학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시민과학자들이 생산한 지식을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

감사합니다.